

하태성 학생, 국제발명대회 금상 수상

- 기초교육학부 하태성 학생, 정수기 생수통 교체하는 보조 장치 발명해
- 전 세계 42개국 참여하는 INTARG서 수상... 인류 발전을 위해 도전하고 싶어



▲ (좌)국제발명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한 하태성 학생 (우)생수통 보조교체장치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기초교육학부 하태성 학생이 폴란드에서 열린 **국제발명대회인 제16회 INTARG(International Invention And Innovation Show)**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매년 발명 아이디어를 실제로 구현하는 기술을 선발하는 INTARG는 캐나다, 프랑스, 독일 등 42개국이 참여하는 세계적인 대회다. 올해는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5월 24일부터 25일까지 개최됐다.

학부과정 1학년에 재학 중인 하태성 학생은 정수기의 생수통을 교체하다가 실수로 떨어뜨린 경험을 바탕으로 **'생수통 교체 보조장치'**를 고안했다. 정수기의 생수통은 보통 20리터로 매우 무거운데도 정수기 상단에 거꾸로 꽂아 놓아야하는 어려움이 있고, 노약자가 교체할 경우에는 물통을 떨어뜨려 부상당할 위험도 있었다.

하태성 학생은 정수기 하단에서 상단으로 이동이 가능한 받침대를 설치하고 정수기 하단에서 생수통을 받침대에 거꾸로 꽂은 후 정수기 상단까지 이동할 수 있게 설계해, 생수통을 높이 들어올리지 않고도 교체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생수통 교체형 정수기는 수도관에 직접 연결된 정수기보다 상대적으로 위생적이고 관리가 용이하기 때문에, 이 장치가 널리 보급되어 생수통형 정수기가 보편화되면 국민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태성 학생은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느끼는 불편한 점을 그대로 두지않고 어떤 해결책이 있을지 고민하는 습관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큰 상을 받아 영광이고 앞으로도 인류의 발전을 위해 도전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